

문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요즘 세태를 비웃다

박수만 전 19~25일 신세계갤러리

서양화가 박수만이 보여주는 인간의 몸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전통 누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상대적으로 크고 넓직한 얼굴에 비해 유난히 작은 눈, 모호한 표정과 불안한 자세, 지나치게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요즘 세태를 비웃는 듯한 모습이다.

그가 19~25일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잊혀진 원형'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가 선사하는 인간은 주름이 패인 이마와 과장되게 긴 목, 빈약하고 짧은 팔·다리를 흔들며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다. 허약한 몸에 어울리지 않는 분홍빛 피부는 더욱 우스꽝스럽다.

이들 인물이 보여주는 스포츠의 한 장면은 은근한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다. 아름다움과 존재로서의 몸이 아닌,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길들여진 고깃덩어리로서의 '육체'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너에게 나를 보내다 2'

그는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으로 2002년 신세계 창작지원 미술제, 2004년 송은 창작지원 미술제에서 각각 입상했다. 9차례의 개인전과 광주미술의 현황과 전망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062-360-1630.

062-360-1630.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제 56회 호남예술제 현악 입상자

- 〈심사위원〉 이형석(전남대 교수) 배상철(목포대 교수) 현순이(광주대 교수) 양승돈(원광대 교수) 임봉순(삼육대 교수) ◇첼로(초등 3,4학년) ▲은상 2 송지민(광주교대 광주부설3) ▲동상 1 김민수(광주송원4) 3 김시형(광주송원4) ◇첼로(초등 5,6학년) ▲최고상 1 최민정(살레시오6) ▲금상 2 김원영(광주국인학교6) 3 오규민(진남6) ▲은상 6 유진욱(여도6) ▲동상 4 한지호(전주문학6) 5 장신형(광주교대 목포부설6) ◇비올라(초등 1,2학년) ▲은상 1 조영(만호1) ▲동상 2 김시연(금부2) ◇비올라(초등 3,4학년) ▲동상 1 김민수(신암3) ◇비올라(초등 5,6학년) ▲금상 1 현동민(살레시오여2) ▲은상 2 한누리(수완2) ▲동상 4 홍지유(전주동2) 5 설유승(광주경신3) ◇비올라(중등) ▲금상 2 최지성(풍암1) 3 김하린(문산2) ▲은상 5 심선영(광주경신3) ▲동상 1 손설희(구례여자2) 4 고서경(구례여자3) ◇첼로(고등) ▲최고상 1 최민정(살레시오6) ▲금상 4 나유빈(광주예술2) ▲은상 2 김원영(광주국인학교6) 3 오규민(진남6) ▲은상 8 박재영(전주예술3) ▲동상 7 임효영(송원여자3) 13 오기성(광주제일3) ▲동상 5 박혜원(전주예술2) 6 김진효(광주예술2) 10 조하은(전남예술3) ◇비올라(고등) ▲금상 3 신세민(전남예술2) ▲은상 4 박지호 5 이은경(대성여자3) 6 김가혜(전남예술3) ▲동상 1 송재은(전남예술2) ◇비올라(초등 1,2학년) ▲금상 6 조예경(영주2) 12 강수연(만호2) ▲은상 3 한다원(광주송원2) 2 김나현(순천왕지2) 11 박세연(광주송원2) 15 송연우(광주송원2) ▲동상 1 이가현(광주송원2) 4 오승아(광주삼육2) 8 김시현(만호2) 13 정지윤(광주송원2) ◇비올라(초등 3,4학년) ▲최고상 14 정재현(전주우전4) ▲금상 6 조은(만호3) 8 김선우(광주송원4) 12 한여원(광주송원4) 16 이서빈(불로4) ▲은상 5 마승연(불로4) 17 박신우(광주송원4) ▲동상 1 김준모(광주송원4) 4 이슬(담양남4) 7 정산하(광주남4) 11 윤채연(만호4) 18 현준서(금천3) ◇비올라(초등 5,6학년) ▲최고상 16 이재은(광주송원5) ▲금상 4 이지현(수완5) 11 정현서(순천왕문5) ▲은상 2 주지연(진월5) 3 서승연(군산경포6) 5 유지우(광주송원6) 6 문영란(전주한들5) 17 김나윤(순천왕지6) ▲동상 8 윤승은(광양가야6) 12 박요한(이리북일6) 14 안지유(한울6) ◇바이올린(중등) ▲최고상 3 송혜빈(광주수피아여2) ▲금상 1 윤지은(금당2) 10 황영지(광주동성여3) ▲은상 5 박진아(이리남성여2) 7 고은진(간지여자3) ▲동상 8 김예훈(영양남중3) 9 정다정(목포하당3) ◇바이올린(고등) ▲최고상 17 김산지(광주예술3) ▲금상 5 오여민(광주예술1) 7 김소연(광주예술2) 13 강수민(전남예술3) 21 백지현(광주예술3) ▲은상 9 최시원(광주예술2) 10 한민영(광주예술3) 16 황태영(충남예술3) 19 전유진(전주예술3) ▲동상 1 강수진(전주예술2) 12 김예송(전주예술3) 15 채소영(전주예술3)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5월 23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현악기 만드는 '마이스트라' 박현진씨

“지방·여자 편견 넘어 계속 도전해야죠”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자리한 '소리 스트링(Sori String)'의 문을 밀고 들어서니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들려온다. 가게 앞쪽에 바이올린, 첼로 등 현악기들이 걸려 있고, 뒷쪽으로는 악기를 제작하는 공방이 보인다.

소리 스트링 주인장 박현진(35)씨는 광주의 유일한 '마이스트라'(Maestra)다. 마이스터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을 뜻하고, 그중 여성 현악기 제작자는 '마이스트라'로 불린다.

박씨가 공방 문을 연 것은 지난 2007년. 박씨는 세계적인 현악기 제작학교로 이탈리아 유일의 국립학교인 '이탈리아 크레모나 국제 현악기 제작학교' 출신이다. 크레모나는 악기 제작의 명인인 아마티, 스트라디바리, 가리넬리 등이 1600년대부터 자리잡고 악기를 만들었던 곳으로 오늘날까지 현악기 제작의 맥을 이어오는 곳이다.



지역의 유일한 여성 현악기 제작자인 박현진씨는 악기를 만드는 일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Sori String

무작정 떠난 이탈리아 유학

5년 공부 후 자격증 취득

2007년 광주에 공방 열어

바이올린·첼로 12대 제작

악기관리법 잘 모르는

음악전공자들 가장 아쉬워

Maestra

박씨가 이탈리아 유학을 떠난 건 전남대 음악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1996년이었다. 첼로 전공으로 전남대에 입학했지만 악기 제작에 매력을 느껴 3학년을 중퇴하고 이탈리아로 날아갔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개 악기가 고장나도 선생님들이 악기 수리하는데 맡겨 주시곤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악기를 고치러 갔다 지

집 현악기를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탄 세상'이더라고요. 첼로를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아, 악기 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항상 악기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이 때부터 부모님을 조르고 시작했죠.”

마침 대학 선배이기도 한 정일훈(2006년 작고)씨가 이탈리아에 유학 중이었다 잠시 광주에 머물던 터라 그 통해 유학 소식을 받고, 부모님께 통보를 했다.

이탈리아말로 전혀 모른 채 낯선 이국땅에 도착한 박씨는 2002년 5년 코스를 마치고 멘토 실습 자격이 주어져 멘토와 함께 악기를 만들게 됐고 이 실습 과정을 통해, 현악기 제작자 자격증을 받았다.

귀국 후 서울의 현악기 제작사 '스트라드' 등에서 근무하던 그는 지난 2007년 광주에 공방을 열었다. 지방에서 악기 제작을 하는 건 힘들 거라는 주위의 만류가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었다. 아직은 악기 제작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수리와 판매까지 겸하고 있다.

“예전에 참 불리한 여건이었죠. 좋은 악기라고 하면 우선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국내산이라고 해도 서울에서 제작된 것을 선호하

죠. 거기다 또 여자라는 점까지 작용하다 보니 선입견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제가 후배나 제자이다 보니 처음에는 선뜻 악기를 고쳐 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드물었죠. 광주에서는 못 고칠거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버겁죠(웃음).”

악기 제작은 오랜 품을 팔아야 한다. 보통 바이올린은 3개월, 첼로는 9개월 정도 소요된다. 아직까지 지역에서 악기 제작은 흔한 편이 아니라 지금까지 12대 정도를 제작했다. 제작 과정은 지난하다. 공방에 보관된 전나무와 단풍나무, 각종 칠 재료 등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모은 것들이다.

박씨가 아쉬워 하는 점 중의 하나는 악기 관리법, 악기 제작 등에 관해 음악을 전공하는 이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서울처럼 음대에서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가끔 대학 같은 곳에 특강을 가면

학생들이 매일 자신이 들고 다니는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명칭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악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수리하러 오면 많이 가르쳐 주죠. 요즘에는 악기 제작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힘든 여건이지만 악기 제작자로서의 자부심은 가득하다.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 달라’며 악기를 맡기고 가실 때 부딪히죠. 또 서울에서 고쳐왔는데 이상한 것 같다고 다시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제 악기는 나무 구입부터 마무리 튜닝까지 손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힘들어도 하지만 좋아하는 일기에 작업이라는 생각보다는 취미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박씨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 제작을 통해 행복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의 062-525-7938.

/김미진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moviehelic. 상무점, 강남점, 서울점. 위험한상견례, 체포왕, 천녀유혼, 씨니, 분노의 질주, 토토, 옥보단, 썬더일레븐, 짜릿한수사관, 짜릿한수사관, 짜릿한수사관. MEGABOX. 옥보단, 워터포펄러블, 토토, 천녀유혼, 옥보단, 체포왕, 소스코드, 분노의 질주, 씨니. CINUS. 천녀유혼, 짜릿한수사관, 옥보단, 위험한상견례, 분노의 질주, 토토, 체포왕, 소스코드, 씨니.